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67 호

2017 년 10 월 16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UN Private Sector Forum & UNGC Leaders Summit 2017 개최 결과 (뉴욕, 9/18~21)
2.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결과 (10/12)
3.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프로젝트 참여안내

■ 본부 소식

1. 유엔사무총장과 글로벌 CEO 들,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 가속화
2. 미국계 기업 50 개사 포함, 300 개 기업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동참
3. UNGC 리더스 서밋, 기업들의 '관행 타파'를 논하다
4. 유엔글로벌콤팩트 2017 SDG 선구자들 발표

■ SDGs 뉴스

1.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회원사의 SDGs 성과 분석한 '2017 UNGC 이행보고서' 발간
2. [SDG 8] "세계 4 천만 명 '현대판노예'...노동 시달리는 어린이 1 억 5 천만"

■ 회원사 뉴스

1. 대북 경륜 갖춘 삼덕통상 문창섭 회장,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임명
2. KT, "한국 ICT 로 세계 감염병 경로 추적 프로젝트 시작"
3. KB 금융, 6 개 계열사에 스투어드십코드 도입

■ CSR 뉴스

1. [인터뷰] "돈만 좇는 성장은 사회 비리 부추겨...성장의 질 고려" - 게오르그 켈
前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2. [인터뷰] 규제 관행 향상을 위해 중요한 분석 도구들 - 아론 자보 미국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
3. [트렌드] 최흥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모범사례 발굴"
4. [트렌드] 고용부, 양대 노동지침 폐기... 저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7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 Private Sector Forum & UNGC Leaders Summit 2017 개최 결과 (뉴욕, 9/18~21)



UNGC 회원사 최고경영자들을 초대하여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위한 10 대 원칙 확산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기여방안을 논의하는 제 9 회 유엔 민간부문 포럼(UN Private Sector Forum)과 전 세계 기업 및 정부, 유엔 기구와 시민사회,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글로벌 아젠다를 논의하는 2017 UNGC 리더스 서밋(UNGC Leaders Summit 2017)이 지난 9 월 18~21 일 뉴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유엔 정기총회는 SDGs 에 대한 진전과 2030 년까지 동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여정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유엔의 가치 및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민간부문과 유엔 간 전략적 파트너십 촉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CEO 라운드테이블, 유엔 민간부문 포럼, UNGC 리더스 서밋 개최를 통해 전 세계 비즈니스 공동체에 2030 의제의 중요성과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9 월 18 일 열린 CEO 라운드테이블은 포춘 500 대 기업과 중소기업, 혁신적인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CEO 가 참석한 고위급 비즈니스 포럼으로, SDGs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임팩트를 높일 수 있는 우선순위 이슈와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의 CEO,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 300 여 명이 참석한 유엔 민간부문 포럼(UN Private Sector Forum)은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 자원 마련, 책임 있는 비즈니스의 성장 촉진, 민간 및 공공부문의 SDGs 투자 확대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은 SDGs 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3~5 조달러의 재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국제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민간부문 특히

금융분야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 스위스연방공화국 대통령과 엘 고어 前 미국 부통령 역시 기초연설을 통해 친환경 자원 효율적인 투자를 증대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금융 매커니즘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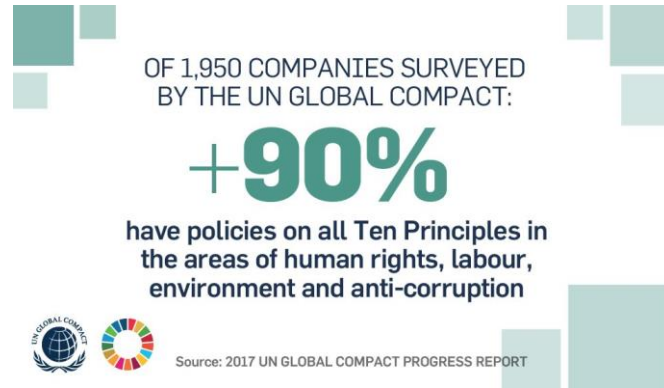
또한 PIMCO, Folksam Group, Fonds de Réserve pour les Retraites(FRR), Hermes Investment Management, KCB Group 등 글로벌 금융사 및 연기금을 포함한 25 개 기업이 작년 이어 추가로 SDGs 지지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9 월 21 일 개최된 2017 UNGC 리더스 서밋(UNGC Leaders Summit 2017)에는 전 세계 기업 및 정부, 유엔 기구와 시민사회, 학계의 전문가 800 여 명이 참석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활동을 공유하고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시장과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기업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파트너십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서밋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올해 새롭게 런칭한 이슈별 액션 플랫폼의 활동을 소개하고, 각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10 대 원칙과 SDGs 를 기업 경영전략에 내재화하고,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확대해가는 로드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UNGC 는 9,500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시장 변혁과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시한 ['2017 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2017 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와 민간부문이 SDGs 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고, 이행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인 ['SDGs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Business Leadership on the SDGs\)'](#)과 ['SDGs 에 대한 이행성과 보고하기: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 문서를 런칭했습니다.



폼질레 음람보 응쿠카 유엔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폴 폴먼 유니레버(Unilever) CEO, 마크 월슨 아비바(Aviva) CEO, 패트릭 토마스 코베스트로(Covestro) CEO, 팀 모힌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RI) CEO, 아비 막스만 옥스팜(Oxfam) CEO 등 주요 연사자들은 SDGs 달성을 위한 활동을 통해 기업은 혁신과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DGs 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패트릭 푸안 토탈(Total) CEO, 타니아 콘트 코센티노 슈나이더 일렉트릭 브라질(Schneider Electric Brasil Ltd.) 사장, 소니아 바쉬르 카비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방글라데시 전무 등 6 명의 SDG 선구자(SDG Pioneers)를 발표하였으며, 수상자들은 자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리세 킹고 UNGC 사무총장은 올해 리더스 서밋을 “큰 변화와 혁신의 날”으로 정의하며, “미래는 기업의 탈(脫)탄행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UNGC 10 대 원칙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SDG 를 향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의제 전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여러 기업인들에게 직원 모두가 ‘SDG 대사(SDG Ambassador)’가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한국에서는 KT, SK, LG 전자,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등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본부와 로컬네트워크 간 협의 미팅에도 참석하여 본부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및 2020 운영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협회의 활동을 전 세계 로컬네트워크와 공유했습니다. 또한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I) 반부패 공동노력 워크숍이 UNGC 본부에서 개최되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NGC 로컬네트워크들의 사례 공유와 토론이 있었으며, 협회 사무처는 페어플레이어클럽(FPC)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SII 참여 네트워크(나이지리아, 이집트, 일본, 인도 등) 및 관련 기관과 반부패 공동노력 캠페인 및 프로젝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하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개최 결과 (10/1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10월 12일(목)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에서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아론 자보(Aaron Szabo) 미국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규제 준수 강화를 위한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최,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가 후원하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포럼으로, 행사는 크리스토퍼 델 코스소 주한미국대사관 차석 대행과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차석 대행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규제 분야의 국제적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들과 함께 규제환경을 보다 폭넓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장을 활성화하고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행사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선진화된 제도를 보유한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미국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해당 법과 규제정책에 대응하는 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이번 행사가 미국 진출 우리 기업 및 주한 미국 기업들이 준법윤리경영이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기반임을 재확인하고 점차 높아지는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론 자보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과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의 '규제 정책 모범사례' 강연과 조기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전무,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김대영 BNP 파리바 본부장의 기업 규제준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론 자보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은 미국의 규제 정책 제정 과정과 더불어 법 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 제정 과정에 있어서 건전한 규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규제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규제관행의 주요 핵심요소는 투명성, 중앙집중적인 검토, 규제영향분석 활용이다. 좋은 규제관행은 공공분야와 한국 및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분야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충돌이나 중복성이 없고, 객관적이며,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더 나은 규제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기업 규제애로 해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사례 발표에서는 조기병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전무는 매트라이프의 리스크 통제구조와 리스크감수 전략을 소개하고, 박선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를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추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김대영 BNP 파리바 본부장은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BNP 파리바의 비전과 함께 이를 기업 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공유했으며, 기업 연사자들은 주제발표 후 엘레나 어거스틴 주한미국대사관 서기관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의 FPC 프로젝트 소개 및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팀장의 준법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소개가 있었습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2018 년 3 월까지 운영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향하고 노력하는 우리기업들의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을 받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일, 유럽연합, 중국 대사관 및 외국 상공회의소와 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프로젝트 참여안내



페어플레이(Fair Play) 반부패 서약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에서는 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준법·윤리 경영 증진 활동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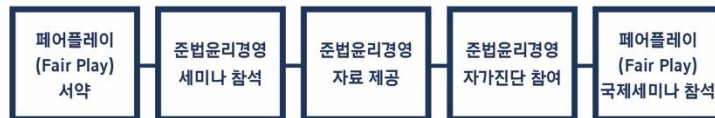
페어플레이클럽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5년부터 3년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 경영 교육, 연구 및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차년도는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의료산업 등의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산업별 리스크 예방 및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
- 2차년도는 7대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올해는 유럽·아시아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함께 통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과 공급망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FPC 참여 기업 혜택 및 기대효과

- 반부패 관련 국제 기준(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UK 뇌물수수법 등) 소개 및 국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관협력을 통한 준법·윤리경영분야 교류 확대
-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세미나 참석 후 수료증 제공,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준법·윤리경영 자가진단 툴 및 관련 자료 제공



주최: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주관: GCEF Global Competitiveness Engagement Forum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페어플레이클럽 사무국 | www.fairplayerclub.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과 글 주임 연구원 / 소 완 연구원
 T. 02-749-2182/2149 | F. 02-749-2148 | E. fpc@globalcompact.kr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오지효 대리 / 김아름 연구원
 T. 02-714-5964 | F. 02-749-2148 | E. infogcef@gmail.com

본부 소식

1. 유엔사무총장과 글로벌 CEO 들,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가속화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재원 마련을 위해 3조~5조 달러의 투자 및 민간 투자의 필요성 역설

(2017년 9월 18일, 뉴욕) -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에의 새로운 원칙 기반의 접근을 논의하기 위해 제 9차 [유엔 민간부문포럼\(United Nations Private Sector Forum\)](#)이 제 72차 유엔총회 기간 동안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기업, 정부, 유엔, 시민사회 리더들이 참여한 동 포럼은 ['2030 의제를 위한 재원 마련: 번영을 열다\(Financing the 2030 Agenda: Unlocking Prosperity\)](#)를 주제로, 금융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적 금융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업의 역할을 역설하였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참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기업, 민간부문, 금융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없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며, 금융이 SDGs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2030 의제(2030 Agenda)에는 평화, 번영, 존엄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사회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17개의 SDGs 목표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계화로 이끄는 로드맵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또한 “저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크게 3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30 의제를 국제 경제 및 금융 정책 입안에 내재화하고, 혁신적 금융을 위한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주요 이슈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옹호하는 일입니다. 세계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러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 9 월 뉴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파이낸스 서밋(UN Finance Summit)을 개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리스 로이타르트(Doris Leuthard) 스위스 연방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 공동체가 SDGs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재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융의 움직임을 좋은 투자 성과 및 사회적 자본을 약속하는 친환경 자원 효율적인 투자로 바꾸는 일입니다. 스위스에서만 개발도상국 내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스위스는 2015 년 약 100 조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는 스위스 소재 기업들에 의해 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흐름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영을 이루기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는 사회, 환경적 투자가 투자방법의 주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가 증가하면서 금융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시의적절한 이슈입니다.

엘 고어(Al Gore) 전(前) 미국 부통령은 기후변화적응, 회복, 완화, 극복을 위한 혁신적 금융 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 CEO 들의 행동을 촉구하였습니다. 엘 고어 전(前) 부통령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전을 더 가속해야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입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파리 기후변화협약(Paris Agreement)에 탈퇴하겠다는 것이

아닌, 달성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목표 달성에 회의적인 자들은 정치적 의지 자체가 언제든지 재생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기업과 유엔 간의 협력을 촉구하면서, “SDGs 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류 금융(공공부문과 기업연금, 투자사, 은행, 보험사 등)이 지속가능발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책임투자 참여 확산을 입증하듯, 25 개가 넘는 기업, 기관, 파트너십에서 SDGs 지지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을 위한 몇 개의 핵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 펨코(PIMCO, 미국 채권운용사)는 유엔 민간부문 포럼(UN Private Sector Forum)에서 기업 발행인과 함께 다양한 SDG 채권(SDG Bonds)을 발행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 포크삼 그룹(Folksam Group, 스웨덴 보험사)는 사모사채 분야에서 국제금융공사(IFC)로부터 3억 5천달러에 달하는 녹색채권(Green Bond)을 인수하였습니다. 포크삼은 UNGC와 GRI와 함께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Reporting on the SDGs\)"](#) 행동 플랫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FRR(프랑스 연기금)은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생태계 변화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및 석탄 저감 활동을 목표로 하는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에르메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Hermes Investment Management, 영국 자산운용사)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요 탄소배출기업들 및 기관 투자자들을 대신하는 수탁자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모색하고 있

습니다.

- 케냐산업은행(KCB Group, 케냐 금융 서비스 기업)은 다른 산업계와 협력하여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녹색 채권을 도입하기 위해 공헌하고 있습니다. 건조 및 반건조 지대를 위한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증진하고,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렉타(Alecta, 스웨덴 보험회사), 인헤런트 그룹(Inherent Group, 미국 투자 매니지먼트 서비스 회사), IAG(Insurance Australia Group, 호주 보험회사), 사로나 애셋 매니지먼트(Sarona Asset Management, 네덜란드 사모펀드 회사), 세커뱅크 T.A.S. (Sekerbank T.A.S., 터키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업계에서 지속가능한 자원 마련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8 년 이래로 연간 개최되는 [유엔 민간부문포럼](#)(UN Private Sector Forum)에서는 기업 CEO 와 각국 대표들이 모여 기후변화, 세계 발전, 인권과 같은 중대한 이슈를 논의해왔습니다. 올해 포럼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이 주최하고, UNGC 와 파트너 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스콧 마터(Scott Mather) 핼코(PIMCO) CIO, 볼라 아데솔라(Bola Adesola) 나이지리아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Bank Nigeria) 전무이사 겸 CEO, 월트 맥니(Walt Macnee) 마스터카드(Mastercard) 회장, 마크 슈나이더(Mark Schneider) 네슬레(Nestlé S.A.) CEO, 농사 다니엘(Nomsa Daniels) 그라사 마셸 트러스트(Graça Machel Trust) CEO, 수닐 미탈(Sunil Mittal)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 겸 바르티 엔터프라이즈(Bharti Enterprises) 회장 등 저명한 기업의 CEO 들이 참석하였으며, 베키 퀵(Becky Quick) CNBC 앵커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한편, UNGC, 탄소공개프로젝트(CDP),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관하고 300 개 이상의 파트너가 협력하여 '[과학적 감축 목표 \(Science Based Targets\) 이니셔티브](#)'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90 개가 넘는 기업들이 동참해, 민간부문에서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 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새로 참여한 기업으로는 나이키(NIKE Inc.), 리바이스(Levi Strauss & Co.), 게스(GUESS), 아일린 피셔(EILEEN FISHER Inc.), VF 코퍼레이션(VF Corporation), 커민스(Cummins), 엡손(Epson), 마힌드라(Mahindra), 산요(Sanyo), 머크(Merck), CVS 헬스(CVS Health), 올람(Olam), 텔레포니카(Telefónica), 베올리아앙비론느망(Veolia Environnement), 윈덤(Wyndham) 등이 있습니다.

-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연설 영상 보기](#)
- ['유엔 민간부문포럼 2017 \(UN Private Sector Forum\)' 알아보기](#)
- [Guide to Unlocking Prosperity: Finance, Invest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문서 보기](#)
- [원문보기](#)

2. 미국계 기업 50 개사 포함, 300 개 기업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동참



아래는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파트너 기관들이 작성한 공동 보도자료입니다

(2017년 9월 18일, 뉴욕) -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참여한 기업이 300 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만 90 여 개사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를 섭씨 2 도 이하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운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에 대한 민간부문의 달성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기후 주간(Climate Week)을 앞두고 갭(Gap Inc.),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게스(GUESS), 에일린 피셔(Eileen Fisher), VF 코퍼레이션(VF Corporation) 등 유명 의류업체들이 과학적 감축목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의류업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이 가치사슬에서 배출됩니다.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동일한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사슬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은 산업 전체의 협업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커민스(Cummins), 엡손(Epson), 마힌드라 산요(Mahindra Sanyo), 머크(Merck), CVS 헬스(CVS Health), 오람(Olam), 텔레포니카(Telefónica), 베올리아 앙비류스망(Veolia Environment), 윈드햄 월드와이드(Wyndham Worldwide Corporation) 등 여러 기업들이 최근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전체 시가총액에 달하는 약 6.5 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업들은 매년 7.5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연간 1.58 억 개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또한, 이니셔티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35 개 국에서 제조, 전력, 소매, 생활용품, 기술, 화학, 의류, 서비스 및 금융 등 다양한 업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UNGC 의 리라 카바시(Lila Karbassi)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담당자는 “과학적 감축목표에 대한 이점들이 널리 알려질수록 저탄소 사회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은 이미 비용 감소, 투자 유치, 혁신, 규제에 의한 불확실성 감소 등 여러 면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새로운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것을 보면 저탄소 사회는 소비자와 지구를 위해서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7 년 현재 과학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기업들 중에는 미국계 기업이 총 50 개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미국기업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미국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총 2 조 달러로, 연간 1.66 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시에 위치한 마스(Mars)는 지난주 이니셔티브 위원회로부터 감축목표 승인을 받았습니다.

케빈 라비노비치(Kevin Rabinovitch) 마스 글로벌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기업 성장의 새로운 표준을 세운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가 마스의 감축 계획인 ‘Sustainable in a Generation Plan’을 승인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장기적으로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기 위해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NGC 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와 공동 발족한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는 참여기업이 2 년 간 ‘과학적 감축목표’를 책정하도록 돕고, 이후 전문가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축목표는 기업 활동뿐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서 고려되어야만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급사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 추가된 41 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72 개의 과학적 감축목표가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승인된 기업으로는 어도비(Adobe), 콜게이트 팜올리브(Colgate-Palmolive), CVS 헬스(CVS Health), 엔에코(Eneco), 지보단(Givaudan), HP(HP Inc.), 커링(Kering), 기린 홀딩스(Kirin Holdings), 맥스앤스펜서(Marks & Spencer), 마스(Mars), 네슬레(Nestlé), 테스코(Tesco) 등이 있습니다.

CVS 헬스의 엘린 하워드 분(Eileen Howard Boone) CSR 및 사회공헌 부사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망 및 동종업계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학적 감축목표를 지지하는 것은 책임있는 성장 전략 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참여기업 보기](#)
- [원문보기](#)

3. UNGC 리더스 서밋, 기업들의 '관행 타파'를 논하다



(2017년 9월 21일, 뉴욕) – 지난 9월 21일, 70 여개국에서 온 기업인, 시민사회, 정부 및 유엔 관계자들이 800 여명이 참석한 UNGC 리더스 서밋 2017(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17)이 개최되었습니다. 제 72 회 유엔총회 기간 동안 열린 동 행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및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달성을 위한 책임있는 기업 행동 및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에서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참여는 인류의 신(新)노선을 개척하는데 큰 용기를 실어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SDGs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회원사들이 유엔 및 현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UNGC 각국협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 행사에서는 다양한 부문의 리더들이 모여 SDGs 이행의 도전과제와 기회를 논하고, 기업들에게 관행적 사고방식을 타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연사자들은 파리협약(Paris Agreement)에 따라 지구를 지키는데 비국가 행위자와 도시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품질레 음람보 응쿠카(Phumzile Mlambo-Ngcuka) 유엔여성기구 사무총장은 SDG 5 번 목표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용인구 10 억 명 중 75%가 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에 있어 남녀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산업혁명은 여성에게 불리한 위치를 가져왔지만 디지털 혁명 시대는 달라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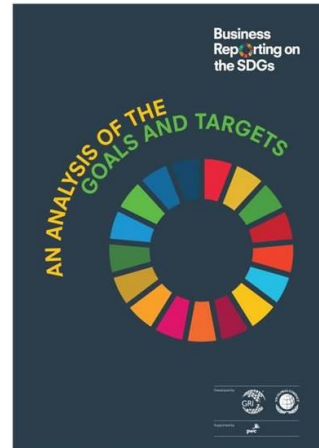
빌 페두토(Bill Peduto) 미국 피츠버그 시장은 피츠버그와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거와 같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현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츠버그시의 전성기가 끝났으며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짓된 소망이나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도시를 재활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 폴먼(Paul Polman) 유니레버 CEO 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은 생존의 현장인 이 시스템 속에서 마냥 방관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SDGs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변화의 과정이 다 그렇듯 SDGs 이행에 있어서도 장애물과 지연, 냉소와 회의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용감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거기서부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우선시 두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글로벌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2017 년 SDG 선구자(SDG Pioneers)’ 6 명을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자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비롯해 이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한 노하우를 청중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올해 리더스 서밋에서는 민간부문이 인류와 지구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SDGs 이행 성과와 영향력을 측정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30 년까지 SDG 달성기한이 5,000 일도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UNGC 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정을 도울 새로운 자료들을 배포하였습니다.



[‘SDG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The Blueprint for Business Leadership on the SDGs\)’](#)은 규모, 산업,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동 안내서는 야심(Ambitious), 협력(Collaborative), 책임(Accountable), 일관성(Consistent), 의도(Intentional)의 5 가지 리더십 요소가 어떻게 기업의 전략, 사업모델, 제품, 공급사슬, 파트너십, 운영방식에 적용되어 기업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SDGs 에 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SDGs 에 대한 이행성과 보고하기: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은 17 개 개별 SDG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GRI, PwC 와 공동 제작한 동 안내서는 각 목표에 대한 검증된 측정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서의 후속 자료인 ‘우선순위 선정 및 이행 성과 공개에 대한 지침서(A Practical Guide to Defining Priorities and Reporting)’도 올해 말 발간 예정입니다.

리세 킹고 UNGC 사무총장은 올해 리더스 서밋을 “큰 변화와 혁신의 날”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미래는 기업의 탈(脫)탄행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이 UNGC 10 대 원칙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고 SDG 를 향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의제 전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운동을 동원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여러 기업인들에게 직원 모두가 ‘SDG 대사(SDG Ambassador)’가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미션 알아보기](#)
- [책임 경영을 위한 UNGC 10 대 원칙 보기](#)
-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캠페인 바로가기](#)
- [원문보기](#)

4. 유엔글로벌콤팩트 2017 SDG 선구자들 발표



(2017년 9월 22일, 뉴욕)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 세계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옹호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비즈니스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는 10명의 SDG 선구자들(SDG Pioneers)을 표창했습니다. 수상자 6명은 지난 9월 21일 뉴욕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열린 '2017년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2017)'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SDG 선구자(SDG Pioneers) 후보를 공모하고, 유엔, 학계, 시민사회 및 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2017년 수상자

- **찰스 임마누엘 아킴이엔(Charles Immanuel Akhimien)**, 모바일케어 통합 솔루션 (MOBicure Integrated Solutions, 나이지리아) 공동 창업자
- **구스타보 페레즈 베를랑가(Gustavo Perez Berlanga)**, 레스토랑 토크스 (Restaurante Toks SA de CV, 멕시코) 수석 CSR 부사장
- **타니아 콘트 코센티노(Tania Conte Cosentino)**, 슈나이더 일렉트릭 브라질 (Schneider Electric Brasil Ltda, 브라질) 사장
- **테레사 제닝스(Teresa Jennings)**, 렉시스넥시스/알이엘엑스 그룹 (LexisNexis/RELX Group Plc, 미국) 준법 책임자
- **소니아 바쉬르 카비르(Sonia Bashir Kabir)**,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방글라데시) 전무 이사
- **아서 케이(Arthur Kay)**, 바이오빈 (bio-bean, 영국) 창립자 겸 회장

- **패트릭 푸안(Patrick Pouyanné)**, 토탈 (Total, 프랑스) CEO
- **칸 테르시오글루(Kaan Terzioğlu)**, 투르크셀 (Turkcell Iletisim Hizmetleri A.S., 터키) CEO
- **조셉 톰슨(Joseph Thompson)**, 에이아이디:테크 (AID:Tech, 영국) 공동 창립자 겸 CEO
- **제이미 아우구스토 조벨 드 아얄라 Jaime Augusto Zobel de Ayala**, 아얄라 (Ayala Corporation, 필리핀) 회장 겸 CEO

- [SDG 선구자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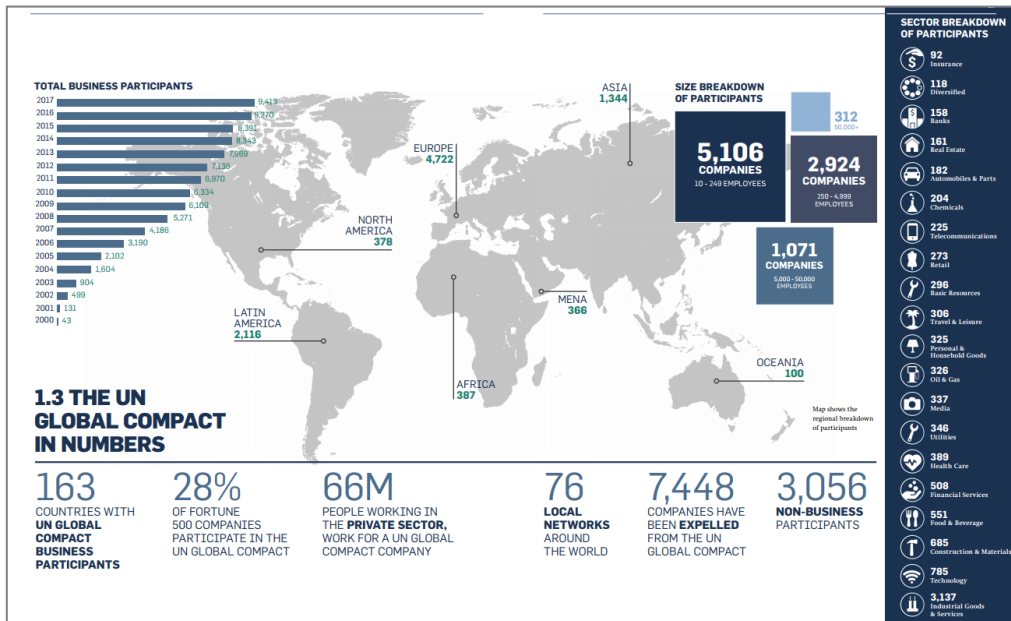
- [2017 년 수상자 상세 약력 바로가기](#)

- [Making Global Goals Local Business 2017 년판 바로가기](#)

- [원문보기](#)

SDGs 뉴스

1.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회원사의 SDGs 성과를 분석한 '2017 UNGC 이행보고서' 발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7 년 한해 동안의 진전과 성과를 담은 '2017 UNGC 이행보고서(2017 UNGC Progress Report)'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2017 UNGC 이행보고서'는 처음으로 UNGC 에 참여하는 9,500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SDGs 달성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기업의 75%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회원사들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미래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회원사들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 활동을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017 년 이행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소개합니다.

- 69%의 응답자들이 그들의 최고경영자가 지속가능성 정책들과 전략들을 개발, 평가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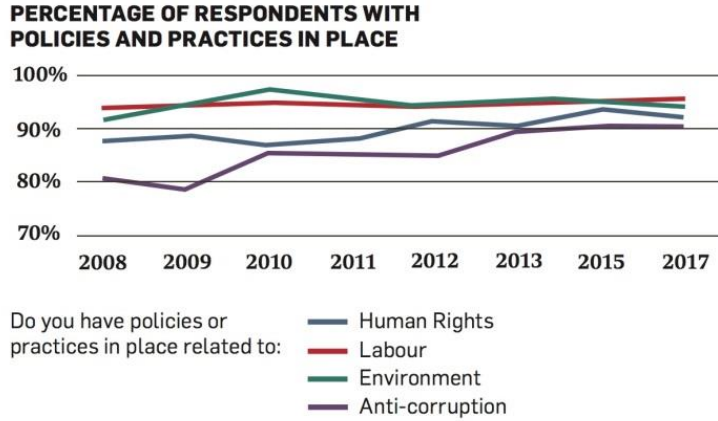
- 이사회 참여도가 2015 년 이후 28% 증가하여 4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성이 더 많은 기업들에서 최우선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기업들이 정책들과 관행들을 통해 다루는 10 대 원칙 측면에서 '인권 및 반부패'가 '환경 및 노동'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해당 분야에서 준비된 정책들과 관행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노동 인권 성과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업들이 2008 년 44%에서 2017 년 53%로 증가했습니다.

- 최우선시 하는 SDGs 목표 순위
 - 목표 8 번: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49%)
 - 목표 3 번: 건강과 복지 (49%)
 - 목표 5 번: 양성평등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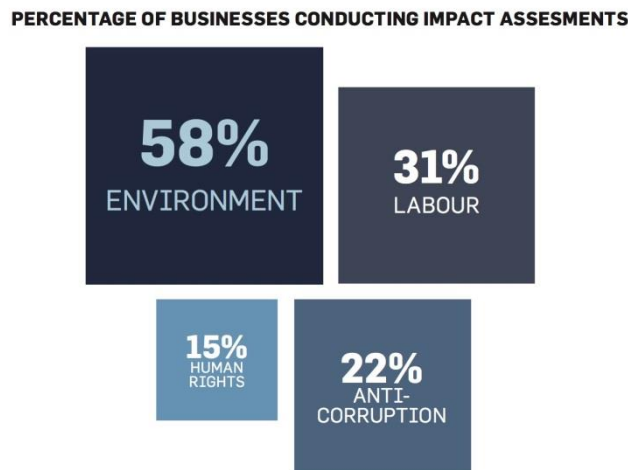
- 80%의 응답자들은 UNGC 참여가 자사의 지속가능성을 진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57%는 UNGC 가 기업 지속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 1. 인권, 반부패 이슈에 대한 지지 및 내부 정책 증가 (Policies and support for human rights and anti-corruption is gr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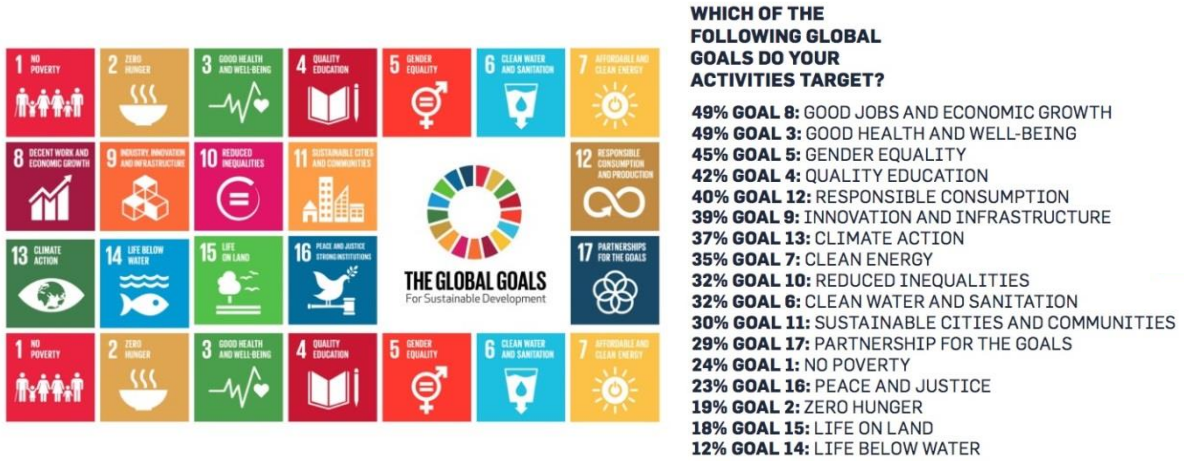
작년과 대비해 인권 및 반부패 관련된 정책을 갖고 있는 회원사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NGC 회원사의 90% 이상이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전분야에 걸쳐 내부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 2. 목표와 행동 간 불일치 (Mind the gap: Actions and intentions are not 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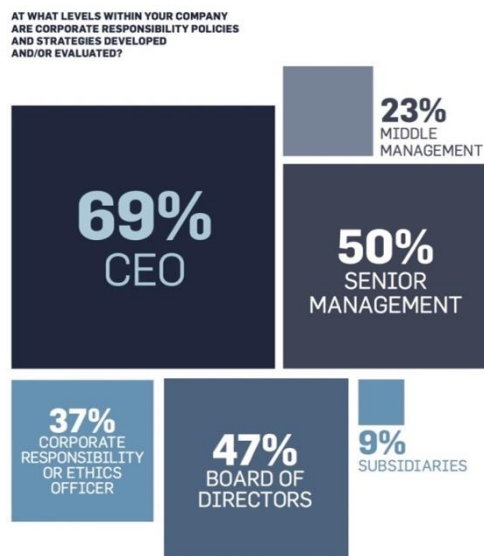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이슈별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회원사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권 및 반부패 분야의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회원사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전히 정책들을 행동에 옮기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과 3. SDGs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Strong engagement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지 2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의 자료는 회원사들이 UN 의 17 개 SDG 목표 중에서 어떤 목표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나타냅니다. 이미 75%의 회원사들은 SDGs 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주요한 방법은 글로벌 목표를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에 내재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과 4. 최고경영자들의 높은 참여도 (CEO's are highly engaged)



69%의 기업들이 책임 경영 정책 및 전략을 최고경영자 차원에서 개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2008 년 이래로 4% 증가한 것입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및 정책을 점점 더 핵심 비즈니스와 연계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 5. 공급망 지속가능성의 향상 (Supply chain sustainability is improving)

이제 60% 이상의 회원사들은 그들의 공급자들에게 적용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 관련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 정책을 요구하는 공급업자들과 일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2008 년 32%에서 2017 년 64%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공급망과 연결된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것은 도전과제로 남아 있으며 57%의 대기업들은 이를 주요한 지속가능성 문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과 6. UNGC 의 전세계적인 확대 (The global compact is becoming more global)

2000 년 44 개 회원사를 갖고 있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제 145 개국 9,500 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는 포춘 500 대 기업의 28%를 포함한 것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종사하는 6 천 6 백만 명의 사람들이 UNGC 회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과 7.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가치 부여 역할 (The global compact adds value)

80%의 회원사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그들의 조직에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7%의 기업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가 기업 지속가능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결과 8. 보고(Reporting)의 주류화 (Reporting is becoming mainstream)

UNGC 의 회원사들은 정기적으로 '참여보고서(Communication on Engagement, COE)' 및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70%의 회원사들은 공개적으로 보고를 실행하고 있으며 55%의 기업들은 보고 활동이 비즈니스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많은 공개 보고 활동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결과 9.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필요 (SMEs need support)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잡성, 노하우, 및 자원들은 중소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사들은 보고(Reporting) 활동을 가장 큰 도전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주요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UNGC 회원사들이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에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는 2030년까지 회원들이 SDGs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원본파일 및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협회 사무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2017 UNGC 이행보고서' 원문 바로가기](#)

2. [SDG 8] "세계 4천만 명 '현대판노예'...노동 시달리는 어린이 1억5천만"



"세계 4천만 명 '현대판노예'...노동 시달리는 어린이 1억5천만"

기사입력 2017/09/20 10:19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전 세계에서 '현대판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현대판 노예 가운데 25% 1천만 명 정도는 어린이들이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에 시달리는 5세부터 17세 어린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1억5천200만 명에 달한다는 것도 제시됐다.



이는 전 세계 어린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 2017년 9월 19일, 국제노동기구(ILO)는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 및 국제이주기구(IOM)와 협력해 작성한 '현대판 노예제의 국제적 추이' 보고서를 발간함
- 전 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을 넘으며 그 중 25%인 1천만 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노동 활동을 하고 있는 5~17세 어린이들은 1억 5천 20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어린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함

- [원문보기 \(연합뉴스\)](#)

회원사 뉴스

1. 대북 경륜 갖춘 삼덕통상 문창섭 회장,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임명

대북 경륜 갖춘 삼덕통상 문창섭 회장,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임명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17-09-21 09:48



고부가가치 등산화와 신발을 만드는 중소기업인 삼덕통상의 문창섭 회장(사진)이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으로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 삼덕통상의 문창섭 회장이 제 18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됨
- 삼덕통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10 대 원칙을 준수하며 자속가능한 기업 활동에 공헌하고 개성공단 사업 참여를 통해 평화 증진에 앞장서 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아 '2017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대상'을 수상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2. KT, "한국 ICT 로 세계 감염병 경로 추적 프로젝트 시작"

"한국 ICT로 세계 감염병 경로 추적 프로젝트 시작"

뉴욕=김덕한 특파원
입력 : 2017.09.20 03:00

황창규 KT 회장 '유엔 제안' 결실
KT·인텔 등 참여 '워킹그룹' 출범, 스마트 검역 시스템 적용도 추진



▲ 황창규 KT 회장이 1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유엔 민간부문포럼 2017' 행사에 참석해 KT의 '감염병 방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로 전 세계인을 괴롭히는 감염병의 경로를 추적하고 예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회의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제안한 '이동통신 정보를 이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가 1년여 만에 결실을 보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로드밴드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정기총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브로드밴드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이 위원회가 워킹그룹을 만들으로써 국제사회가 황 회장의 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해 황 회장의 제안은 "전 세계 이동전화 이용자의 해외 로밍 정보를 분석하면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KT가 2015년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의 로밍 데이터를 분석해 검역에 활용하는 '스마트 검역 시스템'을 구축해 큰 기여를 한 경험에 바탕한 것이었다. 전 세계 800여개 통신회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만들면 전 세계인을 감염병의 공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이번 워킹그룹에는 KT를 비롯해 노바티스재단, 인텔, 케냐·아르헨티나·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 관련 기관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등 10개 조직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감염병 확산 방지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KT가 운영하는 '스마트 검역 정보 시스템'의 글로벌 적용도 추진한다.

- 2017년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로드밴드위원회(Broadband Commission) 정기총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됨
- 이는 2016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의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제안한 '이동통신 정보를 이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가 1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임
- 또한 황 회장은 9월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민간부문포럼 2017'에서 ICT와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를 소개함

- [원문보기 \(조선비즈\)](#)

3. KB 금융, 6 개 계열사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사 인쇄하기

KB금융, 6개 계열사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입력시간 | 2017.09.25 09:52 | 권소현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금융그룹이 은행,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자산운용, 인베스트먼트 등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전 계열사에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가 고객 돈을 제대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행동지침을 일컫는다. 고객의 자산을 수탁·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의 가치향상과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자산 증대를 책임지는 원칙을 의미한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도입의사를 밝힌 후 고객자산 운용규모가 큰 자산운용사와 사모전문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참여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도입한 기업은 51개사에 불과하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아직 스튜어드십코드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 이번 KB금융지주의 결정을 계기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2017년 9월 25일, KB 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전 계열사에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발표
- 현재까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업은 51개사에 불과한 가운데, KB 금융지주의 결정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다른 기업들에게도 전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KB 금융은 기관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활동을 공개해 주주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 [원문보기 \(이데일리\)](#)

CSR 뉴스

1. [인터뷰] "돈만 좇는 성장은 사회 비리 부추겨...성장의 질 고려" - 게오르그 켈 前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한국경제

입력: 2017-09-21 15:01:18 / 수정: 2017-09-21 17:15:48

인터뷰

"돈만 좇는 성장은 사회 비리 부추겨...성장의 질 고려"

게오르그 켈 아라베스크 파트너스 회장 만나보니

유엔 글로벌콤팩트 초대 사무총장으로 지속가능경영 정책 개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성장 정책 내놔야'

"이익만 추구하지만 정작 이익은 얻지 못하는 상태."

방산 비리, 자원 개발 등 국책사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사회안전 비리 등 뇌물과 부패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는 현재 한국 사회는 이와 같은 말로 규정할 수 있다. 게오르그 켈 아라베스크 파트너스 회장(사진)의 '지속가능금융' 모델에 따르면 말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7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켈 회장을 만났다. 켈 회장은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지속가능경영'을 전세계에 널리 알렸다.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에서 보다 진일보한 모델인 지속가능금융을 내놔다.



최학기자 chuk@hankyung.com

- 2017년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게오르그 켈 前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착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속가능금융'을 강조
- 게오르그 켈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의 질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아져야 함을 지적하며, 경제 지표 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힘
- 아울러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며 규제보다는 조언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함

- [원문보기 \(한국경제\)](#)

2. [인터뷰] 규제 관행 향상을 위해 중요한 분석 도구들 – 아론 자보 미국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

[Herald Interview] Analytic tools crucial in improving regulatory practices: US adviser

By Julie Kim Jackson

Published : Oct 13, 2017 - 16:53

Updated : Oct 13, 2017 - 16:53



Amid Korea's continued strive for increased transparency and regulatory business reforms, the Fair Player Club and US Embassy Seoul hosted a joint seminar on better regulatory compliance in Seoul on Thursday.

The seminar invited keynote speaker Aaron Szabo, senior adviser for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in Washington, who shared the US' approach for establishing analytic tools for regulatory design and review.

"The idea behind good regulatory practices is to establish how countries should establish their rules and regulations," said Szabo, during an interview with The Korea Herald on Thursday at the US Embassy Seoul.

- 2017 년 10 월 12 일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센터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규제 준수 강화를 위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함
-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아론 자보 미국 백악관 규제정보관리실 국제규제협력 선임 자문위원은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규제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규칙과 규제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그는 좋은 규제 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하며 좋은 규제를 만드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초기에 공을 들인다면 말미에는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미국이 갖고 있는 제도의 성공적인 측면 중 하나라고 강조함

- [원문보기 \(The Korea Herald\)](#)

3. [트렌드] 최흥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모범사례 발굴"



담변하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승열 기자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srbaek@yna.co.kr

- 2017년 9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규모와 특성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모범사례를 발굴해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힘
- CSR 공시제도는 기업이 저출산 대응 노력이나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민이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해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 계류 중임

- [원문보기 \(연합뉴스\)](#)

4. [트렌드] 고용부, 양대 노동지침 폐기... 저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dongA.com

2017-09-26 03:00:00 편집

로그인 | 회원가입

고용부, 양대 노동지침 폐기... 저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박근혜 정부 정책 20개월만에 백지화
노사정위 재개 가능성 커져 노동계 "신뢰 회복 최소한의 조치"... 재계
"고용 경직성 더 강화될 우려"



김영주 고용장관 "양대 지침, 갈등만 초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세종=뉴스1

정부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 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주요 노동정책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2대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기함
- 고용 경직성이 강화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노동 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재계는 2대 지침이 노사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가 노조 편향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함

- [원문보기 \(동아일보\)](#)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9 월 19 일부터 10 월 16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 입니다.

- 대신직물

2. COP/COE 제출회원

9 월 19 일부터 10 월 16 일까지 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주)대한항공
- CJ 대한통운
- 한국석유공사
- 카라반이에스
- 마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 한국전력기술(주)
- 신용보증기금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2017 년 4/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서울시복지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유엔한국협회,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 LG생활건강, DGB금융지주, 일성건설주식회사, 울산항만공사, 세일인터넷소셜, 씨엔커뮤니케이션, 씨엔엠브이엔오, 한국인권재단, 푸른나무 청예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진해장애인복지관, 에쓰오일,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한국언론진흥재단,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 4/4 분기 납부기한: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소 완 연구원